

별들 날 기다리는 상인들 “2학기 되면 나아지겠죠”

르포

서강대 상권 일대

식당·원룸가 등 상권 전체 한산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 긍정적
18일 이후 매출 ↑... 그나마 숨통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와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 투성이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인근에서 10여년간 식당을 이어온 박 모씨가 식자재 배달 상인들과 모여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지난 19일 오전 방문한 서강대 근처는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의 속도 모른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뜩이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손님이 끊긴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자 거리는 조용했다.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잠시 쉬고자 인근 상인들이 가게 안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식당 운영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자 박씨는 “그나마 근방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새벽에 식사하러 오고, 점심에 학생 몇 명이 가게를 찾아오는 게 전부”라며 고충을 전했다. 이러한 걱정에도 박씨는 가게 운영을 멈출 수 없었다. 수가 적지만 그래도 가게를 찾는 이들을 위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강대학교 건너편 상권을 돌아다니는 인적이 드물다.

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가게를 나서는 식자재 상인 등에 대해 “내일은 당근, 바지락이 필요하니 가져와”라고 소리쳤다.

식당뿐 아니라 상권 전체가 한산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대학교 부근을 둘러봤지만, 거리를 다니는 인적은 드물었다. 그나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게들 사이에 곳곳에 뺏뺏하게 인쇄된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은 가게 가늘에 띄었다. 정리한 지 얼마 안된 것을 증명하듯 먼지 없이 깨끗이 정리된 빈 가게만 남아있었다. 서강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남 모씨는 “한두 달 장사가 안돼도 버틸 만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사정을 모

르고 하는 말이다”며 “그들도 가게 이외의 지출 비용이 있는데 1, 2개월간 매출이 안 잡히기 시작하면 가게를 접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리뿐 아니라 대학교 인근에 있는 식당, PC방, 카페 등 상권 일대가 한산했다. 또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 역시 “학생들이 안 오다 보니 매출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주변만 살펴봐도 1층에 임대 매물이 나온 게 한두 군데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온라인 개강이 미뤄지며 대학교 원룸촌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서강대의 경우 올해 1학기는 전체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다. 일부 대학교에서 코



지난 19일 서울 서강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영석 수습기자

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대면 강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기약 없는 발표 아니냐는 반응이다.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은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공인중개사 대표 남 모씨는 “예년 거래량 대비 60~70%가량 하락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 역시 “원룸도 많이 남다 보니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춘다든지, 보증금을 깎고서 단기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5월 연휴 동안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확진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계상인들의 반응이다. 대학교 정문 건너편에서라면 가게에서 일하는 김현주(54)씨는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확산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주(18일 이후)는 매출이 조금 더 나오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설명했다.

원룸 거래 역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을 기점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남씨는 “그래도 9월에는 개강을 한다고 하니 개강 이전인 7, 8월쯤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다.

/이현진 기자, 이영석 수습기자 ihjysl@metroseoul.co.kr

눈 앞에서 채혈기 밀봉해제... 걱정 사르르

체험기 헌혈의 집 광화문센터

센터 내부 짙은 알코올 향기 가득
채혈기, 사용 후 전량 폐기 처분

“혈액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보유량이 적정량의 절반(2.6일분)으로 떨어진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보낸 안전안내문자다.

정부의 긴급 SOS에 시민들이 움직였다. 주말을 지나면서 혈액보유량은 17일 4.0일분, 18일 4.4일분, 19일 4.7일분으로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피가 부족’하다. 21일 0시 기준 혈액보유량은 2만4574유닛으로, 적정 혈액보유량인 2만6000유닛에 도달하려면 1426명의 헌혈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헌혈의 집 광화문센터’를 방문해 ‘피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센터에서 만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혈액보유량 하락 원인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미루고 있던 수술 진행으로 수요가 늘었으며, 혈액 수급의 큰 축을 담당하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강이 미뤄지면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생에 대한 강박’이었다. 헌혈의 집으로 들어간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손소독제를 바르는 직원들의 모습을 수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센터 안은 짙은 알코올 향기가 가득했다.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헌혈의 집 광화문센터에 방문한 20일 헌혈 참여 독려 안내문이 적혀있다. /이영석 수습기자



헌혈에 사용되는 채혈기가 비닐에 밀봉되어 있다. 사용된 채혈기는 모두 폐기처리 된다.

헌혈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수혈을 하다가 감염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막상 와보니 알코올로 수십번 손을 닦는 간호사들의 피부 상태가 더 걱정됐다. 이들은 접촉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손소독제를 바른다고 했다.

20일 오전 헌혈의 집은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모인 얼굴 없는 천사들로 북적였다. 개인적으로 헌혈하려고 방문한 시민부터 교회에서 단체로 헌혈을 하러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환자 치료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기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헌혈은 크게 ▲전자문진 ▲헌혈경력조회 ▲채혈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번호표를 뽑고 나면 곧바로 전자문진이 시작된다. 방문 시기 이전에 특이한 증상, 특정 약 복용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문진 과정에서 헌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헌혈’과 성분채혈기를 통해 혈소판·혈장 등을 채혈하는 ‘성분헌혈’이 있다.

기자는 생애 첫 헌혈인 점과 수술에 사용되는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전혈헌혈로 결정했다. 채혈에 사용되는 모든 채혈기는 1인 1개 사용이 원칙이다. 밀봉된 비닐봉지에 담긴 채혈기는 피를 뽑기 직전에 개봉됐으며 사용 후엔 모두 폐기처분됐다.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해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에 감염에 대한 우려는 금세 사라졌다.

헌혈을 마치고 대기실을 돌아봤다. 방 안은 얼굴도 모르는 이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여전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영석 수습기자

거리두기 충분 vs 현장관리 부실

고3 등교 이틀째

등교 학생들 사이 반응 엇갈려
온라인 보다 대면수업 만족도 ↑

“거리 두기 수칙 잘 지키고 있어 코로나19 걱정은 없어요. 온라인으로만 뵈던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들으니 집중도 잘 되고요.” (영등포구 고등학생 전모군)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모여서 떠들고 서로 접촉이 빈번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3이 작성한 게시물)

첫 등교를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고등학교 등교길에서 마주친 조모(18)양은 “교실에 가림판이 설치돼 있고 시험 대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코로나 19 감염 우려도 없다”며 “다음 주부터 모든 학년이 등교하게 되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양모(18)양 역시 “교실 내 거리두기 뿐 아니라 급식도 조를 짜서 나눠서 먹다 보니 접촉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수업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수업 집중도’ 측면에서 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모(18)군은 “선생님을 포함해 친구들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다”며 “대면으로 수업을 받으니까 집중도 온라인 수업보다 훨씬 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가 부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3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수능 커뮤니티 ‘수만



지난 20일 코로나19 발병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첫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휘’에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20여 개 이르는 ‘등교 후기’가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부족한 현장 실태에 공감한다는 반응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간에 접촉이 가장 빈번했다는 게 학생들의 말이다. 교실마다 선생님이 관리를 진행하는 수업 시간은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상대적으로 감독이 허술한 틈에 학생들 간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산가족 상봉 같았다’라며 교내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다른 반 친구들과까지 섞여서 끼이고 노는 경우도 빈번했다”며 “선생님들도 쉬는 시간에는 통제하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작성자는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전교생이 걸릴 것 같다”이라며 교육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온종일 창문을 열고 있어 교실이 습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현진 기자, 이영석 수습기자